

춘천문화재단, 근·현대 문화자료 DB 구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함광복)이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벌인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 자료를 수집, 색인별 정보검색과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지역문화 자료의 수집에 들어갔다.

수집 대상은 근·현대 생활상과 문화가 담긴 서적, 인쇄물, 사진, 개인 일지, 생활문화사 자료를 비롯해 미술, 음악, 무용, 음악 등 문예활동 자료 등이다.

기증이 어려울 경우 임대도 가능하며 자료는 기증자의 이름을 담아 아카이브에 영구 보존한다.

문화재단은 1차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재정리해 전문자료실에 비치하고 추후 인터넷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문화콘텐츠로 재구성, 연구자, 학생, 관련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각종 기록 자료는 지역문화의 큰 자산인데다 작은 자료라도 소중한 가치가 있어 시민의 자료 기증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문화재단은 이날 오후 7시 효자2동 강원대 정문 앞 옛 농산물품질관리소 건물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033-262-1360)

ha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9-02 16:29 송고]